

대학문화의 문제점

김 안 중 서울대 학생처장

‘대학문화’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대학’이라는 말과 ‘문화’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고, 이 두 가지는 각각 그 자체로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이상이나 당위를 나타내는 말일 뿐, 우리의 현실 ‘대학문화’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경험 때문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난 봄에 세인의 탄식을 불러일으킨 사고가 있었다. 그것은 지난번 본지(『대학교육』 통권 100호, 1999. 7~8호)의 ‘시론’에서 고태용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대학의 ‘잘못된 통과의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불렀던 소위 ‘자하연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뎛’이라는 이름의 ‘민족문화 사랑회’ 동아리 회원들이 신입 회장을 학교 안의 연못에 빠뜨리는 통과 의례 같은 의식을 하다가 두 명의 학생이 익사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당시에 이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고를 야기하게 된 대학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소상히 파악할 수가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대로 이 사고를 구성한 직접적

인 요인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캠퍼스 내에서의 음주, 둘째, 학생들의 잘못된 통과의례, 셋째, 캠퍼스 내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통제력 부재가 그것이다. 이 각각을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현실의 대학문화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가능하다면, 비록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부끄러운 사례라 하여도 각각의 요인을 해부해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대학 내에서의 음주문제부터 살펴보자. 필자의 지식으로는 우리 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의 음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전 포항공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학교 구내에 맥주집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도 그랬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대학 안에는 축제때마다 ‘장터’라는 것이 생겨나고, 장터에는 으레히 막걸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의 대학에서도 축제 때에는 장터가 열리고 막걸리가 등장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테면 대규모 정치성 집회가 학내에서 열릴 경우에도 장터와

막걸리가 등장한다. 장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바깥의 각종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80년대에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학생들의 유가족들이고 장터를 통해서 얻는 수입은 이들이 속한 단체의 활동비로 충당된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80년대의 대학 풍속도에서 정치적 집회나 시위는 '90년대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남긴 장터문화와 그 부산품으로서의 음주문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질문은 우리가 다 함께 한번쯤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짐작되지만, 문제는 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를 옹호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학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임을 상기할 때 학교 당국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설득하면 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형성해 갈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2000년대로 넘어지는 숙제가 아닌 가 싶다.

다음, 학생들의 잘못된 '통과의례'의 문제도 음주문제와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80년대의 저항문화는 대학생들 사이에 기성문화에 대한 반발심과 비판의식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로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의 행동유형도 사회일반에서 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소위 '튀는' 행동 유형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크고 작은 수많은 학생집회 때마다 등장하는 이상한(?) 몸짓과 언어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동아리 신입회원 환영식에서 나타나는 유별난 통과의례들이 모두 그런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간혹 신입생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신문지면에 보도되기도 하고, 필자의 대학에서처럼 물에 빠뜨려 사람이 죽는 사례까지도 생겨나는 것이다.

통과의례를 영어로는 '이니시에션' (initiation) 즉, '입문식' 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가치있는 문

화의 존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은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가치있는 학문과 예술의 세계 속으로 입문시키는 것으로서의 '교육' 과 매우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20세기 후반부의 교육철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피터즈(R.S.Peters)와 오우크쇼트(Michael Oakeshott)의 여러 저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릇한 언행이나 이상한 관행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과의례' 라고 부르기 어렵다. 최대한으로 보아서, 그런 것들은 모두 현재 우리의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철학적, 사상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대치물을 찾으려는 몸부림 같은 것인지 모른다. 사실상 현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사상적, 이념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떤 일에 젊음을 바쳐서 헌신해야 할지, 우리의 대학생들은 아직 이런 질문에 대답이 된다고 할 만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서,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능력과 전공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서 평범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삶의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무슨 책을 읽고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침도 없는 듯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4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갈수록 왜소해질 뿐이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각종 '동아리'에 가입하고, 대학내의 동아리 숫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는 대학 본부에 등록된 동아리만도 100개가 넘고, 각 단과대학별로 등록된 동아리의 수는 수백개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매우 탐구적이고 전통있는 동아리들도 있지만, 소수의 회원들이 모여서 매우 폐쇄적으로만 운영되는 동아리들도 부지기수이다. 거기에도 아직 '80년대의 운동권 지향적인 정치성 동아리들도 적지 않아서 이들이 동아리 문화를 리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금의 대학 동아리 문화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이상한 '통과의례' 들 조차도 전혀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지럽

계 대학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문화는 인젠가는 한번쯤 정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이며, 이 점에서 대학 당국 쪽의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 본 두가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들의 '학생 장악력'이 크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말은 곧 우리 대학들이 그만큼 학생에 대한 '교육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한다. 현재 학생 자치 세력이나 동아리들은 대부분 학교 당국의 간섭이나 개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도교수제도'는 극히 형식적이어서 대학의 지원금을 타낼 때, 도장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나 지도교수의 존재가 의미를 갖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생 모두의 책임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학교 쪽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대학은 '교수 중심'의 대학이어서 교수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특정한 전문분야의 일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내버려져' 있는 형편이다. 그만큼 교수들은 학생에 대한 소위 생활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생활지도란 곧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을 말하고, 그런만큼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학생 쪽의 '인간적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자신의 전공학문을 지도하는 과정과 그 '맥락 속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올바른 안내자 역할을 교수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만 '대학문화'의 문제가 맡겨진다면, 현재의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

려면, 대학당국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건물을 더 짓고, 학교 규모와 예산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 - 잠시 4년간만 거쳐가는 학생들 - 을 완전히 대학의 내부 구조 속으로 흡수해서 대학이 참다운 교육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 쪽에도 대학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 짧은 지면에 비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학생일 뿐이며, 그러기에 성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교수와 대학 당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학의 교육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필자의 대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이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모든 것을 각설하고, 그런 '바보같은' 행동 끝에 사망에 이른 그 두 학생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현 우리 대학문화와 대학교육의 허점이 빚어낸 희생자들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두 학생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마친다. **김인중**

김인중

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정신문화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으로 학생처장을 맡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플라톤의 교육론』 등이 있고, 『오우코소프트의 자유교육론』 외 다수의 논문 등이 있다.